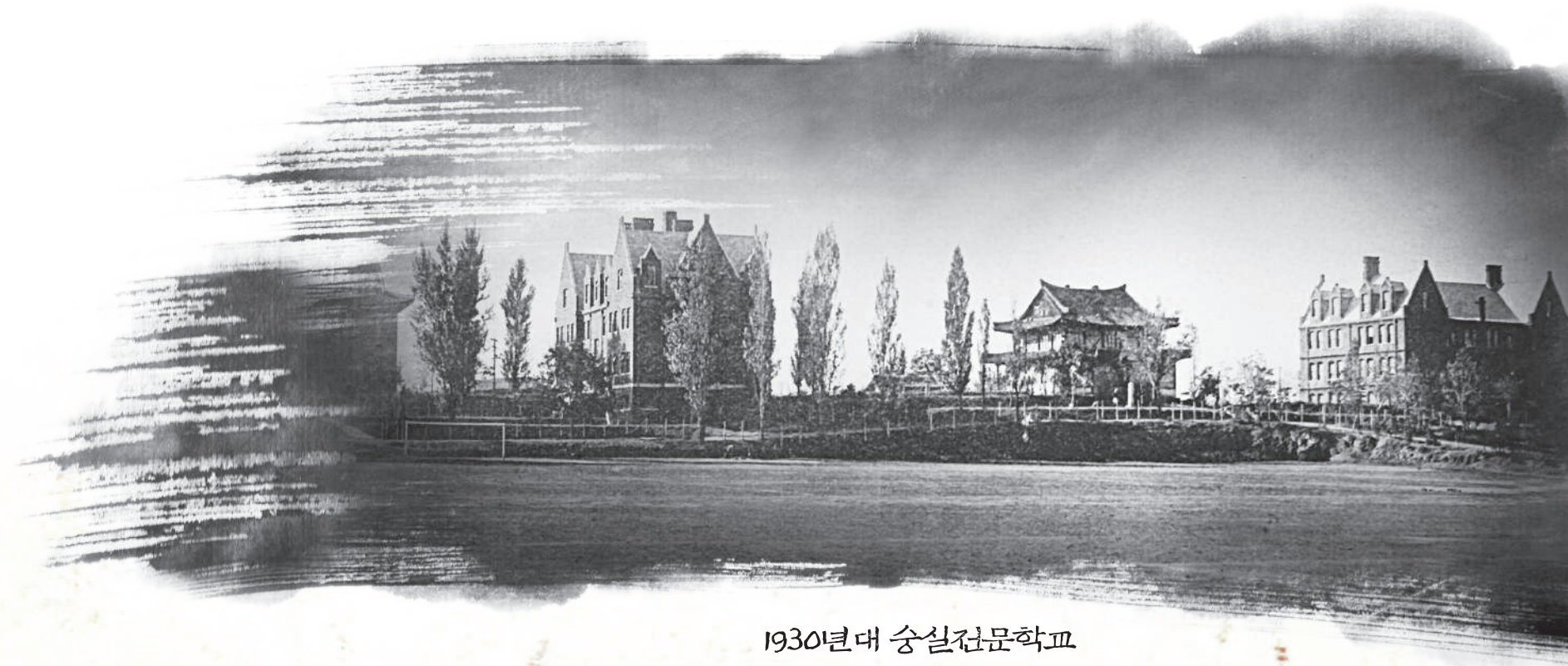


한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인재양성에 헌신한 교육자



1930년대 숭실전문학교

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
학생들에게 시킬 수 없다

1905년 9월 선교사로 내한하여 선천 신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
한국인의 교육에 공헌하였으며, 3·1운동 때에도 한국인의 만세시위를 지지하고 성원하였다.
그 후에도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변호하여 일제에 의해 '극단적인 배일자(排日者)'로
지목되어 감시를 받았다. 1928년부터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 겸 숭실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
자신은 물론 학생들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장직에서 파면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.
그 후에도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.

조지 새넌 맥쿤

George Shannon McCune

1873. 12. 15. ~ 1941. 12. 4.
미국, 독립장(1963)

